

파견기간	2025.04.07. - 2025.08.21	교환학생 귀국 보고서	학 번	2022-17231
파견국가	독일		소 속	공과대학 화학생명공학부
파견대학	Karlsruhe Institute of Technology		성 명	홍유경

I. 교환 프로그램 참가 동기

교환학생을 지원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의 생활을 경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어져 온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 아무 기반도 없는 낯선 곳에서 스스로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경험이 미래의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대학생이라는 자유로우면서도 보장된 신분으로 상당히 긴 시간동안 외국에서의 삶을 경험해볼 수 있는만큼 저에게 매우 좋은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II. 파견대학 및 지역 소개

저는 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카를스루에(Karlsruhe)에 위치한 Karlsruhe Institute of Technology(KIT)에서 한 학기를 보냈습니다. 대도시만큼 복잡하지는 않지만 대학도시로서 적당히 활기를 띠는 곳으로, 비교적 거주지를 구하기가 쉽고 생활비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독일의 남서부에 위치해 프랑스, 스위스 등 인접 국가로의 이동이 매우 용이합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철도 교통의 요지로 꼽히고, 가까운 거리에는 공항도 있어서 여행하기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가졌다는 점이 저에게는 큰 메리트였습니다.

KIT는 독일의 대표 공과대학 중 하나로, 공학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단일 연구기관으로는 독일에서 규모가 가장 큰 축에 속하는 만큼, 학생의 연구 참여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환학생 신분으로도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있습니다. 국제 학생 비율이 높아 다문화적인 학습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 또한 특징입니다.

III. 출국 전 준비 사항

1. 비자 신청 절차

국내에서 비자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대사관에 예약을 잡아야 합니다. 예전과는 달리 현재는 직접 인터뷰 날짜를 선택할 수 없고, 대사관에 신청을 해놓으면 비는 시간대에 자동으로 예약이 잡히는 시스템입니다. 저의 경우 11월 초에 신청을 해서 12월 중순에 인터뷰가 잡혔고, 비자는 1월 중순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발급 수수료 75유로를 원화 현금으로 인터뷰 당일에 납부해야 하며, 전화로 여권을 찾으러 오라는 연락이 옵니다. 저의 경우 비자 신청 과정에서 문의사항이 있어 이메일과 문의 폼으로 여러번 질문을 남겼으나 결국 답변을 받지 못했으니,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인터뷰에 가서 모두 해결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2. 숙소 지원 방법

카를스루에 내 기숙사는 학교 측에서 교환학생에게 제공하는 기숙사와 사설 기숙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1월 중순에 메일을 통해 안내를 받았는데, 교환학생의 경우 신청을 하면 반드시

방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다만, 거주 기간이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로 고정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HadiKo라는 사설 기숙사에 지원했는데, 규모가 굉장히 큰 곳으로 플랫당 15명이 화장실과 주방을 공유하는 형태입니다. K1부터 K6까지 숫자가 커질수록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고, 월세도 그에 따라 올라갑니다. K1-K6 중에 입주 시기에 맞추어 랜덤하게 방이 배정됩니다. 저는 신청 후 K1, K2를 피하고 싶다는 메일을 넣었는데 실제로 반영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K4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K4의 경우 서울대학교 신관 기숙사와 비슷한 컨디션이었습니다. HadiKo는 트램 정류장으로부터 거리가 조금 있어 생활에 불편한 면이 있었으나, 기숙사 자체 행사가 많고 같은 플랫에 거주하는 학생들끼리 친해지기도 쉬워 교환학생들에게는 좋은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HadiKo 외에 Nancystrasse, Willy-andreas-alle라는 기숙사도 있지만 대부분 KIT의 국제학생은 HadiKo에 거주하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곳은 플랫 당 6명만 거주하기 때문에 공용 공간이 더 깨끗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Nancy는 KIT 캠퍼스에서 굉장히 멀고, Willy-andreas-alle의 경우 KIT에 아주 가깝지는 않지만 마트들이 근처에 있어 지리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두 기숙사 모두 월세는 HadiKo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3. 파견 대학 지불 비용(student fee, tuition fee, 기숙사 비용 등)

학기 시작 전 semester free로 108.7유로를 납부해야 했으며, 스포츠 수업을 수강할 경우 별도의 tuition fee가 있었습니다. 제가 거주한 HadiKo K4의 건물은 월세가 310유로, 보증금이 500유로였습니다. 이외에 추가로 지불해야하는 금액은 없었습니다.

4. 기타 유용한 정보

여름학기의 경우, KIT는 4월 말에 개강해 7월에 강의가 모두 끝나고, 8월부터는 수업 없이 시험만 보는 Exam period가 시작되기 때문에 학기 중 여유 시간이 매우 많은 편입니다. 6월 초중순에는 모든 강의가 진행되지 않는 lecture-free period도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저의 경우에는 마지막 대면 시험이 8월 21일이었고 끝나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비대면으로 시험 하나를 더 봐야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해서 학기를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국 일정으로 인해 시험을 앞당겨야 한다면 대부분의 교수님들께서 시험 일정을 조정해주시거나 비대면 시험으로 전환을 허용해주십니다.

IV. 학업

1. 수강신청 방법

스포츠, 외국어, 세미나 수업을 제외하면 별도의 수강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Campus management 사이트와 ILIAS를 통해 수업에 등록한 후, 자유롭게 수업을 수강하다가 기말고사 기간에 시험 등록을 하면 되는 시스템입니다. 수업 수강을 중간에 취소하고 싶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 기말고사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시험 등록은 campus management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Chemical and process engineering 학부의 경우 외국인 학생 담당자 분께 이메일로 등록하고 싶은 수업의 과목 코드를 먼저 보내 허가를 받아야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스포츠, 외국어 수업은 시간에 맞추어 선착순으로 수강신청을 해야하는데,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 신청이 쉽지 않은 편입니다. 세미나 수업의 경우 본 학기 시작 전에 신청을 받거나 수업 자체가 학기 전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2. 수강과목 설명 및 추천 강의

저는 한 학기동안 총 4개의 과목을 영어로 수강했습니다. 영어 수업은 대부분이 대학원 수업들인데, 크게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학부에 따라 영어 수업이 아예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Chemical and process engineering을 비롯한 6개정도의 학부에는 전체 등록 학점(ects)의 75% 이상을 전공 과목으로 채워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니 이 점을 미리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부의 홈페이지에 module handbook이 게시되어 있는 곳도 있고,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학부 행정실에 문의하면 파일을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Module handbook을 통해 각 학부에서 열리는 강의들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Electrochemistry

화학부의 전기화학 강의이며, lecture와 seminar가 각각 1시간30분씩 진행됩니다. 본 수업에서는 이론에 대한 설명이 주가 되고, seminar에서는 교수님이 연습 문제를 풀이해주셨습니다. 전기화학의 기본 개념과 실제 산업에서의 응용에 대한 내용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2) Biosensors

젊은 교수님께서 매학기 진행하시는 대학원 수업인데, 교수님께서 가르침에 매우 열정적이셨습니다. 바이오센서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과 작동 원리, 공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기말고사 대체 논문 리뷰 발표를 해야 했지만, 공부 분량이 많지 않고 난이도도 높지 않아 수업 자체에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3) Bioprocess Development

공정 최적화, scale-up/down 등 생물공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배웁니다. 역시 lecture와 seminar가 각각 1시간 30분동안 진행되는데, 실제로는 두 수업 간의 큰 구분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학생 참여형 수업의 느낌이 강했습니다.

(4) Microbiology for Engineers

미생물학 중에서도 공학적인 측면에 집중하여 폐수 처리, 항생제 등의 주제를 폭넓게 다룹니다. 역시 난이도가 높지 않아 수월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교수님께서 안내사항 등을 수업 중에만 안내해주시고 따로 공지는 해주지 않으셔서 수업을 놓치면 중요 공지사항을 놓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3. 학습 방법

수차례 언급했지만 제가 들은 수업들만 유독 그랬는지 전반적인 난이도가 높지 않고, 분량도 많지 않아 서울대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모든 시험 대비가 상당히 수월했습니다. 성의껏 공부하면 다들 좋은 성적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4. 외국어 습득 요령

출국 전 학교에서 초급 독일어1만 수강하고 갔는데, 생활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중장년층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독일 사람들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고, 특히 카를스루에가 대학도시이다 보니 타국에서 온 학생들이 많아 독일어를 사용할 일이 많지 않았습니

면 영어 공부만 하고 오셔도 충분히 즐겁게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영어도 아주 잘하지는 못하는 편이었는데, 말을 똑바로 하지 못해도 대부분의 친구들이 잘 알아들어 주기 때문에 언어 능력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5. 기타 유용한 정보

학기 시작 전 학교 시스템에 접속 가능한 이메일주소와 비밀번호가 우편으로 발송되니 캠퍼스 포털에 주소를 최대한 정확히 기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우편을 받지 못했는데, 관리자 분과 줌으로 약속을 잡아 여권으로 신분을 증명한 후 계정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안내 자료에는 반드시 전공을 맞춰서 지원해야 한다고 적혀 있는데, 따로 KIT 행정실에 문의해본 결과 꼭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정책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따로 KIT 행정실에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V. 생활

1. 가져가면 좋은 물품

카를스루에는 euroshop, Tedi 등 저렴한 가격에 생필품을 살 수 있는 곳이 많고 아시안 마트에도 웬만한 한식 식재료는 다 팔기 때문에 한국에서 반드시 가져와야 하는 물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교환학생의 경우 아마존 프라임도 6개월 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은 모두 문제 없이 빠르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도착 당일에 도착하자마자 사용해야 하는 물품 정도는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현지 물가 수준

유럽답게 외식물가는 비싼 편이지만, 식료품 물가는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체감 물가는 높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제품과 고기, 과채류가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식비에서 돈을 아끼려면 정말 많이 아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식사 및 편의시설 (식당, 의료, 은행, 교통, 통신 등)

3.1. 의료

독일 교환학생의 경우 의료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하는데, 보험은 크게 공보험과 사보험으로 나뉩니다. 공보험(TK)의 경우 매달 140유로를, 사보험은 보통 매달 5만원 정도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보험의 경우 추가적인 공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KIT의 경우 사보험 인정을 잘 해준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보험에 들기 전 KIT 측에 사보험 공증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 모르고 공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료를 5개월만 내도 100만원이 넘다보니 나중에는 저의 선택을 크게 후회했습니다.

3.2. 은행

저는 엑스파트리오에서 보험에 가입하며 함께 개설한 계좌를 사용하다가 송금 등에서 큰 불편함을 느끼고 온라인 banking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처음에는 Vivid라는 곳에서 계좌를 개설하려고 했는데, 본인 인증 과정에서 거절을 당해 최종적으로 N26이라는 곳에서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보니 Vivid는 이유도 모른채 본인 인증이 반려 당하는 경우가 꽤나 많은 것 같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3. 교통

독일의 경우 deutschland ticket이라는 58유로짜리 월간권으로 S-bahn, U-bahn, Regional 기차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후동행카드의 확장형 버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근교 도시까지는 무리 없이 이동할 수 있으며, 프랑스나 스위스의 국경까지 이동한 후 열차를 갈아타는 방법으로도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KIT 학생의 경우 nextbike라는 대여 자전거를 1회 30분까지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4. 통신

저는 Aldi라는 마트에서 Alditalk의 유심을 구입하여 사용했습니다. EU 국가와 영국에서는 별도의 로밍 없이 자유롭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EU 국가를 벗어날 경우에는 로밍 비용이 굉장히 비싸지기 때문에 모나코, 스위스를 여행할 때는 무심코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학교 및 여가 생활 (동아리, 여행 등)

파견 전 Erasmus(ESN)이라는 국제 학생 교류 프로그램 관련 안내 메일을 받습니다. 일종의 OT 프로그램인 O-Phase가 학기 시작 전 일주일동안 진행되고, 학기 중에도 매주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O-Phase 기간동안 친구들을 가장 많이 사귀게 되니 외국인 친구를 사귀는 것이 목적인 분들은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를스루에에서 출발하는 기차 연결편이 정말 많고, karlsruhe/baden-baden airport(KFB)도 근처에 있어 여행을 다니기 굉장히 편리합니다. 다만 독일 철도 교통의 경우 지연되는 일이 매우 잦기 때문에 환승 텀이나 도착 시간에는 항상 여유를 두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경우 독일에서 장거리 열차를 10회 넘게 이용했는데, 지연이 되지 않은 게 딱 한번밖에 없었습니다.

5. 안전 관련 유의사항

카를스루에는 치안 관련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밤이 늦어도 길거리가 밝아서 여자 혼자 새벽에 돌아다녀도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베를린을 제외하고는 방문했던 모든 독일 도시들의 치안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유럽의 다른 국가를 여행하면서는 치안이 좋지 않다고 느껴진 곳들이 있었기 때문에 관광지를 다닐 때는 조심하시고 핸드폰 스트랩은 항상 착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6. 기타 유용한 정보

교환학생은 ESN-card라는 것을 유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플렉스버스(유럽 장거리 버스) 10% 할인, 라이언에어 할인 및 수하물 추가 무료 등 여행자를 위한 혜택이 쏠쏠하기 때문에 꼭 발급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행 시 수하물 추가를 1번만 무료로 해도 발급비 이상의 금액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비행기는 최소 28일 전에 예약해야 하고, 대부분의 혜택이 휴가철인 6월 중순 이후로는 막히기 때문에 부지런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VI.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이번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인생에서 내적인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생활하며, 이전에는 잘 알지 못했던 제 모습을 발견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낯선 상황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저의 성향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서울이라는 대도시를 떠나 카를스루에에서 보낸 한 학기는 마음에 여유를 주었고, 덕분에 멈춰서서 주변과 스스로를 바라보는 귀중한 시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니 교환학생 생활 중 후회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환학생을 고민 중이신 분들께는 꼭 도전해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하는 바를 이루든, 이루지 못하든, 타국에서의 생활 경험과 외국인 친구들과의 교류는 단순한 여행만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깨달음을 안겨준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내용으로 본부 국외파견 교환학생 의무 사항인 수학 후기를 제출합니다.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에서 이를 OIA 홈페이지 게시 등 정보 공유 및 학생 안내, 홍보 등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출일자	2025 년 8 월 15 일
지원자* 서명 필수	홍 유 경 